온라인멘토링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차 례〉

1. 서론
2. 다문화학생 멘토링과 온라인멘토링
3. 연구의 방법과 설계
4. 연구 결과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학습동기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에 멘티(다문화가정 자녀)로 참여한 초등학생 중 대구·경북지역 거주자를 연구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방법인 설문조사와 질적 방법인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측정도구로는 학교학습동기 척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학습동기

* 영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다문화교육연구원 연구원.

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오프라인방식보다 온라인멘토링 방식이 더 효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멘토링 방식이 비록 온라인 화상학습시스템을 멘토링의 주된 기제로 활용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오프라인 문화체험 활동을 결합하여 실질적으로는 “융합형”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방법을 통해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그 결과, 온라인멘토링은 멘티의 학업적 측면에서 성적향상・수업흥미・시간개념 인식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정서적 측면에서는 자신감 향상・또래관계 개선・고민해소의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융합형 멘토링 방식이 단일 방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멘토링에 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더 큰 효과를 미침을 보여주며, 융합형 멘토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다문화사회, 멘토링, 온라인멘토링,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 단위의 지리적 경계개념이 약해지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 활동영역으로 인식하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융(混融)하고 있다. 경제・산업의 영역을 넘어 인간사(人間事)의 주축이 되는 혼인에 있어서도 그 경계가 유연해졌다. 최근 국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고[1],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그 자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1) 국제결혼건수: 2003년 24,776건, 2009년 33,300건, 2010년 34,235건, 2011년

하는 추세에 있다. 교육부(2012)가 발표한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에 따르면 2007년 0.19%에서 2011년 0.55%로 5년간 2.9배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2011년 다문화학생 통계(38,678명) 기준, 학교급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2)]

통계청(2011)에 따르면 출생한국인 부모의 출산이 2009년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고, 2010년은 5.6% 증가한 데 비해, 다문화가정의 경우 2009년 41.5%, 2010년 6.8%로 증가하여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은 내국인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과 상위 학급 진학으로 초등학교 재학생 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간 경계가 유연해진 지구촌 시대,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집단지성을 통한 정보화 기술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여타 물적 자원보다도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이 핵심이 된다. 앞서 언급된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는 곧 우리 미래사회를 이끌 잠재적 인재 가운데 이들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 초등학생 시기는 교육의 기초가 되는 단계로서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등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닌 가치와 태도를 전면적·조화적으로 육성하려는 전인교육의 본질적 함의를 지닌다고 본다(홍신기, 2012). 따라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 시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하다. 그런데 일반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대인관계가 소극적이고, 출생환경이 드러나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29,762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통계청, 2012.07.10.)

2) 초등학생 28,667명(74.1%), 중학생 7,634명(19.7%), 고등학생 2,377명(6.2%)

않으며 학업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오성배, 2007). 둘째, 차별 및 편견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우울, 위축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김순규, 2011). 셋째, 다문화가정의 형성은 대부분 한국 농어촌지역 남성들의 '하향결혼(Marry Down)' 현상[3]에 기인하며, 이들은 대체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므로 자녀교육에 관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4] 넷째, 다문화가정 학생 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전체의 37.2%[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기관 접촉의 기회가 적어 교육수혜 측면에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6] 제28조는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수혜의 기회를 동등하게 받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로 올곧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2009년부터 시작된 「다문화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일 대(對) 일 또는 일 대(對) 다수로 멘토(mentor, 교육자)와 멘티(mentee, 학습자)가 되어 기초교과학습 및 학교생활상담, 문화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

3) 자신과 같거나 또는 더 낮은 계층의 사람과 맺어지는 결혼.

4)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의 60%가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이다(보건복지부 외, 2009).

5) 2011년 12월 기준 전체 다문화학생 38,678명(100%) 중 도시거주자가 24,287명(62.8%), 농촌거주자가 14,391명(37.2%)이다(교육부, 2012).

6)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0년 10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생함.(출처; http://www.unicef.or.kr/popup/crc_all.asp)

기본적으로 대학생(멘토)이 다문화가정 자녀(멘티)가 있는 곳(멘티 재학 학교, 가정,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여 멘토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농촌(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의 방문이 어렵거나 왕복 소요시간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경우는 대학생이 멘토링 활동 신청을 주저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멘토링 사업의 본래 목적인 교육소외지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다문화학생 멘토링」을 운영하는 기관 중 대구·경북 소재 Y대학교 부설 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라인(on-line)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Y대학교 부설 연구원에서 개발·운영 중인 온라인학습 시스템 및 운영노하우를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국고 예산이 투입되는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의 전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멘토링이 다문화가정 자녀(멘티)의 학업적, 정서적 측면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온라인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이 멘티의 학교학습동기 전체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온라인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이 멘티의 일반적 자기효능

감 전체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온라인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이 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에 비해 멘티의 학교학습동기 전체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온라인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이 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에 비해 멘티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전체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멘토링 활동이 다문화학생들의 학업이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어떤 원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멘토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요인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2. 다문화학생 멘토링과 온라인멘토링

1) 멘토링

오늘날 교육적 영역 외에도 기업 및 단체 조직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멘토링(mentoring)이란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친구 멘토르(Mentor)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데이비스(Davis, 2005)에 따른 멘토링의 정의를 다섯 가지 요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상현, 2011 재인용).

첫째, 멘토링은 멘티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해주도록 설계된 장기적인 관계이다. 둘째, 멘토링은 경력과 전문적인 개발은 물론 심리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셋째, 멘토링은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의 유익에도 상

호호혜적인 작용을 한다. 넷째, 멘토링 안에서 더 크고 전문적인 경험과 영향력, 성취감을 건네는 것은 멘토의 몫이다. 다섯째, 멘토링에서의 관계는 개인적이다.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 발전적 활동이다. 이러한 멘토링의 기능에 관해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크램(Kram, 1983)의 연구가 주로 인용되고 있다. 크램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멘토-멘티 18쌍을 대상으로 멘토링 기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멘토링의 기능으로 경력관련 기능과 사회심리적 기능, 크게 2가지 기능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력관련 기능은 멘토링 관계를 통해 멘티가 자신의 과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둘째, 사회심리적 기능은 멘토링을 통해 멘티가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본인의 정체성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학생 멘토링의 기능을 크램(Kram, 1983)이 제시한 두 가지 측면인 경력관련 기능, 사회심리적 기능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다문화학생 멘토링

다문화학생 멘토링은 교육부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한국 사회 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와 함께 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겪는 언어소통, 학교생활적응, 학습부진, 정서 불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와 이들의 롤모델이 될 멘토(대학생)의 다양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기존 교·사대생에 한해 진행되었던 멘토링을 일반 대학생들로 멘토의 참여요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1년에는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기관(대학)을 기존 13개에서 전국 47개

기관으로 확대・시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권역별 거점기관(5개)을 두고 권역내 참여기관 활동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다문화학생 멘토링의 기능을 크램이 제시한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관련 기능은 멘티가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멘티의 학업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즉 멘티가 멘토링을 통하여 학교학습동기를 제고하고, 학생으로서 자신의 학습역량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 지도, 보호하고, 도전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사회심리적 기능은 멘토링을 통해 멘티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감과 효능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멘티가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감안하여 일반 아동에 비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학생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역할모형을 제시하고, 수용 및 지원, 상담, 그리고 우애적 관계 형성을 통해 멘티의 심리적 안녕과 자기효능감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문화학생 온라인멘토링

지리적, 경제적 환경의 제약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갖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Y대학교 부설 연구원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멘토링이란 일대일 맞춤형 화상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멘토(대학생)가 원거리에 있는 멘티(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온라인상에서 기초교과 지도, 학습・생활상담 등을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멘토와 멘티가 주 2회기씩 한 학기동안 유사한 시간대에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도록 권장하며, 매 회기는 '도입-활동-정리'의 3단계로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오프라인(off-line)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즉, 분기별로 멘토와 멘티가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만남(가정방문, 현장문화 체험학습, 캠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던 친밀도 형성과 정서적 교류를 배가하는 감성교육을 병행한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은 사실상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혼합한 일종의 「융합형(blended) 멘토링」 또는 「혼합형(hybrid) 멘토링」이라 하겠다.

「다문화학생 온라인멘토링」활동 중 정규 온라인멘토링 외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은 멘토 1인과 멘티 1인간 이루어지거나, 멘토 다수와 멘티 다수 간(팀 단위)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멘토링의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 멘토 사전교육을 통해 멘티 거주 지역별(시·동) 멘토의 팀을 구성하고, 구성된 팀원 간 논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팀장을 선출하여, 팀 단위 구성원인 멘토 다수와 멘티 다수가 함께 현장문화 체험학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다문화가정 자녀) 가정방문, 팀별 현장문화 체험학습, 캠프 등이 있다.

3. 연구의 방법과 설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2년 「다문화학생 멘토링」에 멘티(다문화가

정 자녀)로 참여한 초등학생 중 대구·경북지역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관련 자료는 대구·경북지역 내 멘토링 운영 5개 기관(대학) 담당자들의 도움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구기간 중 멘토링 활동에서 중도 탈락한 멘티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사전·사후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총 768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전조사		사후조사	
변수	범 주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멘토링 유형	온라인	102	26.6	102	26.6
	오프라인	282	73.4	282	73.4
성별	남자	182	47.4	191	49.7
	여자	202	52.6	193	50.3
학년	1학년	65	16.9	73	19.0
	2학년	81	21.1	77	20.1
	3학년	78	20.3	87	22.7
	4학년	52	13.5	49	12.8
	5학년	63	16.4	54	14.1
	6학년	45	11.7	44	11.5
부모 출신국	중국	127	33.1	123	32.0
	일본	91	23.7	95	24.7
	필리핀	67	17.4	54	14.1
	베트남	47	12.2	54	14.1
	기타	52	13.5	58	15.1
합 계		384	100	384	100

먼저 멘토링 유형에서 '온라인'이란 Y대학교가 시행하는 '다문화학생 온라인멘토링' 활동(사실상 융합형 또는 혼합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말하고, '오프라인'이란 Y대학교 이외의 타 대학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방과후 멘토링' 프로그램을 말한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녀가 거의 비슷하다. 조사대상자의 학년 분포를 보면, 비교적 고른 편이나 저학년이 좀 더 많다. 멘티 부모(거의 대부분 어머니)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많았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이 비슷한 규모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수많은 나라가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만,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남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남아메리카의 멕시코, 브라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서구의 여러 나라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모로코, 서남아시아의 시리아 출신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도 있었다. 그 외에 북한 이탈주민이 부(모)인 경우도 몇 명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90% 이상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이며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등은 극히 소수라 가정유형에 따른 멘토링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질적 연구는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온라인멘토링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연구자와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 멘티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와는 1~2회에 걸쳐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회당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장소는 멘티 가정 또는 공공기관(학교)의 공실(空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대상 멘티(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설문지를 활용하여 측정하기 전에 멘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티 설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하여, 멘티가 설문문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도구는 '학교학습동기 척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두 가지이다. 우선 '학교학습동기 척도'는 멘토링의 기능 중 경력관련 기능(Kram, 1983)에 있어서 대상 멘티가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멘티의 학업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멘토링의 기능 중 사회심리적 기능(Kram, 1983)에 있어서 대상 멘티의 정서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다.

(1) 학교학습동기 척도

학교학습동기(school learning motivation)란 학습자 개개인 스스로가 학교학습을 위해서 학교수업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과제에 대해 주의력을 집중하고, 적절성・신뢰성・호기심・도전감・만족감・기대감・참여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노력하는 정도를 말한다(김용래, 2000).

본 연구에서는 김용래(2000)가 1993년 제작하여 1995년에 수정・보완한 문항을 2000년에 재(再)타당화 분석을 통해 요인 적재치와 공유치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된 학교학습동기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학습동기 척도를 구성하는 4개의 하위요인과 그 개념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본질(외적) 동기'는 일정 과제는 학습자가

학교학습을 통해서 원하는 것(예; 학업성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과제 수행은 다른 학습자와 비교 우위적인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학습자의 신념과 의욕적인 노력의 정도를 말한다. 둘째, '본질(내적) 동기'는 학습자가 외부의 어떤 유인이나 일정 보상과 강화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가 학교학습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신념과 의욕적인 노력의 정도를 말한다. 셋째, '수업동기'는 학습자 자신이 학교의 수업내용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신념과 의욕적인 노력의 정도를 말한다. 넷째, '계속동기'는 학습자가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교 밖에서도 계속해서 학습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신념과 의욕적인 노력의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학습동기의 신뢰도와 문항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학교학습동기 척도의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해당문항*	신뢰도(α)
비본질동기	8	1, 3, 4, 6, 7, 8, 21, 22	.8786
본질동기	7	5, 9, 10, 11, 14, 15, 16	.8464
수업동기	4	12, 13, 18, 19	.8350
계속동기	6	2, 17, 20, 23, 24, 25	.8458
전체	25	1~25	.9266

주: *부록의 학교학습동기 문항과 관련됨.

출처: 김용래, 2000

(2)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이란 일반적 상황에서 자신의 수행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동기변인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수행해나가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김아영, 1997). 본 연구에서는 쉐어 등(Shere,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and Rogers, 1983)이 만든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토대로 김아영 · 차정은(1996)이 재구성하고, 김아영(1997)이 24문항으로 완성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아영(1997)의 척도에서는 Likert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응답이 원활할 수 있도록 Likert척도의 일반적 구성인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은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해당문항**
자신감	7	1*, 3*, 5*, 10*, 11*, 13*, 16*
자기조절 효능감	12	2, 4, 7, 8, 12, 14, 17, 19, 20, 21, 23, 24
과제난이도	5	6*, 9*, 15, 18, 22
전체	24	1~24

주: *는 역산문항(9문항) / **은 부록의 자기효능감 문항과 관련됨.

하위요인의 구체적인 개념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Shere

등, 1983)를 말한다. 둘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대(Bandura, 1993)를 말한다. 셋째, '과제난이도'는 개인이 어떤 수행 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것(Bandura, 1993)을 말한다.

척도에 대한 반응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기술을 넘어서는 위협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려하며, 자신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쉬운 과제만을 선택한다(Bandura, 1977).

3) 연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멘토링 활동이 멘티(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행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인 양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방법인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실험집단'과 온라인방식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통제집단', 이 두 집단에 대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각각 대상 멘티(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학교학습동기 검사,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지 자료들은 IBM SPSS Statistic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신뢰성이란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정확성(accurac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신뢰성은 연구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가설검증에 앞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검증을 위해 개별 변수의 항목들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였다. 신뢰도가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획일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alpha값이 .60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고 본다. 누널리(Nunnally, 1978)는 alpha값이 .70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학습동기 척도의 신뢰도는 사전 .953, 사후 .940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사전 .833, 사후 .860으로 내적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2) 가설검증 결과

(1) 가설 1의 검증

온라인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이 멘티(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학습동기 전체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온라인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학교학습동기를 전체 수준에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paired-t test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학교학습동

기는 사전에는 평균 3.1812이었으나 사후에는 평균 3.4165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2<0.05). 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링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학교학습동기는 사전에는 평균 3.3275이었으나 사후에는 평균 3.2935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525>0.05).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은 멘티(다문화가정 자녀) 스스로가 학교 학습을 위해서 학교수업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과제에 대해 주의력을 집중하고, 의욕적으로 노력하도록 학교학습동기를 높이는 것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된다.

(2) 가설 2의 검증

온라인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이 멘티(다문화가정 자녀)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전체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검증을 위하여 온라인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전체 수준에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paired-t test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사전에는 평균 3.1499이었으나 사후에는 평균 3.319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0<0.05). 오프라인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사전에는 평균 3.1634이었으나 사후에는 평균 3.220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149>0.05).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은 멘티(다문화가정 자녀)가 일반적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수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동기 획득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3) 가설 3의 검증

온라인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이 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에 비해 멘티(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학습동기 전체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의 검증을 위하여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학교학습동기를 전체 수준에서 사후점수를 Independent Samples t-Test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학생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사후 학교학습동기는 온라인방식의 경우 평균 3.4165이었으나 오프라인방식의 경우에는 평균 3.2935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067>0.05).

(4) 가설 4의 검증

온라인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이 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에 비해 멘티(다문화가정 자녀)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전체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의 검증을 위하여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멘토링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전체 수준에서 사후점수를 Independent Samples t-Test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학생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사후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온라인방식의 경우 평균 3.3199이었으나 오프라인방식의 경우에는 평균 3.2204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055>0.05).

3)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를 기본으로 행위 주체자의 주관적 체험과 그 의미에 중점을 두어 자연적 장면을 관찰하고, 면담하고, 기록·기술하여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연문희·박남숙, 2001).

이와 같은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객관적이고 수량적인 결과가 도출해내지 못하는, 변인간 상호작용 현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다문화학생 멘토링의 기본 목적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적·정서적 측면에서 성장지원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온라인멘토링 참여가 멘티의 학업적·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1) 멘티의 학업적 성장지원 측면에서 온라인멘토링 효과

본 연구에서 다문화학생 멘토링 활동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멘티들이 인식하는 멘토의 역할을 조사한 결과 '학교 교과목 지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75.5%로 가장 높았다.[7] 이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업적 성장의 효과를 이루고자하는 요구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크램(Kram, 1983)이 제시한 멘토링의 기능 중 경력기능(career functions)의 하위기능인 지도(coaching)는 멘티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전해주는 기능으로서, 멘티가 멘토링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학업적 성장에 기능한다.

면담내용 분석은 현상학적 자료 분석방법(Giorgi, 2002)[8]에 따라 성적향상, 수업흥미, 시간개념 인식의 세 가지 의미단위로 구분하였다.

---

7) 멘티가 인식하는 멘토의 역할: ① 학교 교과목 지도(75.5%), ② 학교생활(친구관계) 상담(10.9%), 진로 상담(4.9%), 가족관계 상담(3.1%), 기타(5.5%)

8) 질적 연구 도구로 수집된 면담자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각각 의미 있는 단위로 묶고 새롭게 기술한다.

① 온라인멘토링을 통항 성적향상

온라인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업적 측면에서 두드러진 효과는 학교성적 향상이었다.

>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고 학습하게 해주세요. 멘토 선생님은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공부하다가 선생님이랑 게임도 해요. 틀린 그림 찾기나 오목 같은 거요. (…) 사회를 잘 가르쳐 주셔서 90점을 맞았어요. 수학도 진짜 못했는데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윤○○)

> 멘토링 시간에 과학, 사회같이 보충자료가 필요한 과목은 멘토 선생님이 사진, 글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셨어요. 나에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 멘토링을 하면서 성적이 늘고 공부에 재미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연날리기 대회에서 1등도 하고 백일장에서 상도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이○○)

멘토링을 통해 학교시험을 통한 교과과목의 성적향상 외에도 비(非)교과과목(특별활동)의 등수 및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② 온라인멘토링을 통한 수업흥미

심층면담에 참여한 멘티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멘토링의 학업적 효과는 수업(공부)에 흥미가 생긴 것이었다. 멘티들이 공통적으로 응답한 문구는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온라인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은 멘토링을 통한 학습을 일종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생님이랑 놀러 다니면서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선생님이랑 아름다운 추억이 생긴 거 같아요.(초등학교 5학년, 최○○)

온라인멘토링에 참여하길 잘했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도움이 많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 영어를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니 이해가 잘 돼요.(초등학교 3학년, 도○○)

이는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이 온라인방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멘티의 학습과정에서 정기적인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한 “융합형(blended)” 방식으로 이루어져, 멘토와 멘티의 라포(rapport)가 형성됨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다. 미국 워시트노(Washtenaw)지역의 청소년대상 멘토링도 온라인멘토링과 유사한 구성으로 진행된다. 멘토링은 일주일에 2시간 이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멘토와 멘티가 함께 참석하는 정기적인 이벤트를 마련하고, 멘토들의 개인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현아, 2004).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이 오프라인방식의 멘토링과 차별화된 구성은 정기적인 오프라인 프로그램(가정방문, 현장문화 체험학습, 캠프 등)을 융합(blend)하여 진행함에 있다. 이 과정에서 멘티는 멘토와 라포(rapport)형성을 돈독히 하게 되고, 교육자로서 비전문가인 멘토(대학생)들은 다른 멘토들과 교류함으로써 멘티의 학업적 지원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멘토링 기술(skill)을 주고받는다. 이는 다음 회기 온라인멘토링 활동에 적용되어 멘티의 학업적 성장지원에 도움이 된다.

③ 온라인멘토링을 통한 시간개념 인식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온라인상에서 시간 약속을 정하여 멘토와 멘티만이 입장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개설하여 접속한 후 진행할 수 있다. 멘토와 멘티 양측이 접속한 후에는 멘

토링 활동시간이 온라인상에 자동으로 기록되며, 기록을 통해 운영기관에서는 멘토링 활동 횟수 및 시간을 점검하고 활동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멘티(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시간개념 인식을 통해 학습계획에 따른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 멘토링 시간을 정해놓고 해서 시간약속을 더 잘 지키게 되었어요. (…)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초등학교 2학년, 안○○)

>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별로 할 일 없어서 시간 낭비할 수 있지만, 컴퓨터로 온라인멘토링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초등학교 4학년, 김○○)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은 시·공간적 제약이 오프라인방식에 비해 적으므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멘티의 교육기회 획득에도 효과적이다.

(2) 멘티의 정서적 측면에서 온라인멘토링 효과

멘티와의 면담결과,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업적 측면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멘토와 멘티가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화상화면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맞대면(對面)(face-to-face)할 수 있고, 육성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융합형(blended)”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정서적 측면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면담내용 분석은 현상학적 자료 분석방법(Giorgi, 2002)에 따라 자신감 향상, 또래관계 개선, 고민해소의 세 가지 의미단위로 구분하였다.

① 온라인멘토링을 통한 자신감 향상

온라인멘토링을 통해 멘티는 크램(Kram, 1983)이 제시한 멘토링의 기능 중 사회심리적 기능(psychosocial functions)의 하위요소인 수용 및 지원기능을 적용받는다. 이는 멘티가 멘토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멘티들의 응답내용 분석결과, 온라인멘토링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내용이 다수 나타났다.

> 온라인멘토링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거에 자신감이 생겼어요.(초등학교 2학년, 안○○)

> 저는 멘토링 하고 나서부터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하루에 발표 10번 하기도 하고, 학교행사 있으면 참가하려고 해요.(초등학교 5학년, 채○○)

② 온라인멘토링을 통한 또래관계 개선

심층면접 결과,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은 멘티의 또래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은 회기 중간에 정기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문화체험이 있다. 이때는 멘토와 멘티가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멘토-멘티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공동체 경험을 통해 또래관계 형성의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장학습을 통해 교과과정의 학습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 캠프에 갔을 때 새로운 사람과 만나 같은 한 조가 되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재미있는 1박2일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최○○)

> 조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니 협동심도 길러지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 불국사를 갔었을 때 멘토 선생님과 함께 놀면서 불국사 체험을 하니깐 불국사 같은 유적지가 좋아지게 되고 불국사에 관한 내용을 멘토 선생님이 좀 더 쉽게 가르쳐주셔서 이해도 아주 잘 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박○○)

③ 온라인멘토링을 통한 고민해소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은 크램(Kram, 1983)이 제시한 멘토링의 사회심리적 기능의 하위요소 중 상담(counseling)기능을 적용받는다. 이는 멘토링을 통해 멘티가 자신의 긍정적인 느낌을 저해받는 문제에 대해 생각과 관심을 나누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뜻한다.

> 온라인멘토링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내 생각도 변했어요. 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박혀있던 고민들도 선생님께 속 시원히 털어내 머리가 한결 편해졌어요. 나와 선생님을 징검다리처럼 이어주는 온라인멘토링은 희망의 멘토링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윤○○)

이처럼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의 학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서적 측면의 효과는 학업적 측면의 효과와 연계되어 상호 발전적 효과를 나타낸다.

5.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교육기회 획득

의 평등과 기초학력 부진·정서불안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주최로 전국단위에서 실행되고 있는「다문화학생 멘토링」을 유일하게 온라인(on-line)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Y대학교 부설 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멘티(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학교학습동기(school learning motivation)와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측면에서의 효과가 차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멘토링 활동이 멘티의 학교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의 경우 멘티의 학교학습동기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학습동기의 하위요소인 비본질동기, 본질동기, 수업동기, 계속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멘티에게 온라인멘토링 활동은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오프라인멘토링활동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온라인멘토링 활동은 멘티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오프라인멘토링 활동의 경우 멘티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인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멘티에게 온라인멘토링 활동은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오프라인멘토링활동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오프라인멘토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온라인멘토링 활동이 멘티에게 더욱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학습동기의 여러 측면 중 ‘비본질동

기’라는 하위요소에서 온라인멘토링 활동은 유의미한 차이로 더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측면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이라는 하위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온라인멘토링 활동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결과는 멘토링 활동 방식에 따라 멘티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현상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적 연구를 심층면접방법을 통해 시행하였다. 멘티의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멘토링은 멘티의 학업적 측면에서 성적향상・수업흥미・시간개념 인식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정서적 측면에서는 자신감 향상・또래관계 개선・고민해소의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의 효과가 더 우세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Y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프로그램(문화체험 활동)이 복합적으로 동원된, 일종의 “융합형(blended)”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는 데 기인하지 않나 판단된다.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티의 학업적・정서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판명된 융합형(blended) 멘토링이 가지는 특성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멘티의 상호작용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멘토링을 위한 멘토의 직접 방문은 시・공간적 제약이 따른다. 반면 온라인 화상학습 시스템을 통한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접촉을 원활하게 한다. 화상화면을 통한 면대면(face-to-face) 만남은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직접 만남과 유사한 효과를 형성한다. 또한 직접만남의 경우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

감시킨다.

둘째,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학습매체 활용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인다. 온라인을 활용하여 멘토링 진행과정에서 학습과 관련된 파일(그림, 동영상, 음악 등)을 멘토와 멘티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의 활용은 학습의 효과를 배가하며, 기본적으로 멘티의 컴퓨터 활용능력 또한 신장시킨다.

셋째, 오프라인(off-line) 체험활동은 일대다(一對多) 구조로 연결망을 확장한다. 온라인-오프라인의 융합형으로 진행한 Y대학교의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한 오프라인 체험활동은 멘토와 멘티의 일대일(一對一)의 관계가 아닌, 멘토와 멘토, 멘티와 멘티 등 상호작용의 연결망을 확장하여 멘티의 학업적·정서적 측면의 효과를 배가한다.

이와 같이 융합형(blended) 멘토링은 단일 방식(on-line 또는 off-line) 멘토링에 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장·개발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래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멘토링 활동이 '멘토'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데이비스(Davis, 2005)에 따르면 멘토링은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의 유익에도 상호호혜적인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멘토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멘토와 멘티 간 상호호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온라인 멘토링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멘토와 멘티간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효과의 차이도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차기 연구에서는 참여주체들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효과의 분석

후 멘토와 멘티의 매칭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운영자의 역할이 멘토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은 멘토와 멘티 등 주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외에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운영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운영자의 역할 중 어떠한 요소가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분석하여, 운영자를 위한 역할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는 현재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수혜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스마트기기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방식을 병행하는 융합형(blended) 멘토링을 채택하는 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이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도 멘토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교육복지국,『다문화교육 선진화 방안』, 2012.3.28.

김민정 외,『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표준 가이드북』, 서울: 한국장학재단, 2012.

김상현,「여대생들의 진로 멘토링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순규,「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청소년학연구』18-3, 2011, pp. 247-272.

김아영,「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교육심리연구』11-2, 1997.

김아영 · 차정은,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6, pp. 51-64.

김용래,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2000.

보건복지부 · 법무부 · 여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정책보고서 2010-06, 2009.

연문희 · 박남숙, 「교육과 상담에서의 질적 연구」, 『연세교육연구』 4-1, 2001, pp. 243-263.

오성배,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12, 2007.

이현아, 「청소년 대상 멘토링에 대하여」, 『교수논총』, 서울신학대학교, 2004, pp. 405-431.

통계청,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보도자료」, 2011.11.3.

홍신기, 「영국의 Hadow, Plowden, Cambridge 초등교육관련 보고서 분석에 따른 초등교육의 본질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77, pp. 191-215.

Bandura, A.,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993, pp. 117-148.

Davis, A. L., “An Investigation of Formal Mentoring Relationship and Programs: A Meta-analysis.”, PhD Dissertations,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2005.

Giorgi, A., “The Question of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33-1, 2002, pp. 1-18.

Kram, K. E., “Phases of the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1983, pp. 608-625.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78.

Shere, M., J.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and Rogers, “The 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1983, pp. 663-671.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30

http://www.unicef.or.kr/popup/crc_all.asp

<부록> 설문지

○ 학교학습동기 및 자기효능감 관련 문항만 발췌
○ 5점 척도로 측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No.	학교학습동기
1	나는 수업내용을 그 시간에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들으려고 한다.
2	나는 숙제가 부담이 되지만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한다.
3	나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한다.
4	나는 어떤 교과목이든 높은 점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5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정량의 복습은 반드시 끝내려고 한다.
6	나는 나쁜 점수를 받은 교과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7	나는 좋은 성적을 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예습·복습을 열심히 한다.
8	나는 좋은 성적을 위해 정신을 집중해서 교과내용을 읽고 이해하고자 한다.
9	나는 교과목마다 그 학습단원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한다.
10	나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내 스스로가 계획한 시간량으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1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잘 모르는 내용은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이해하려고 한다.

12	나는 수업시간에 시험 볼 시간이 발표되면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계획을 세운다.
1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때, 매 쪽 마다 이해한 후에 기억하려고 한다.
14	나는 피곤하더라도 그날 배운 교과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습을 반드시 하려고 한다.
15	나는 수업내용이 그 시간에 이해되었더라도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하려고 한다.
16	나는 학교에서 배운 교과내용을 정신을 차려 차분하게 읽고 이해하려고 한다.
17	나는 학교 밖에서도 수업내용과 관련 있는 사항들을 항상 관심을 두고 살피려고 한다.
18	나는 언제나 먼저 학습한 내용을 이해한 후, 다음 배울 교과내용을 예습하려고 한다.
19	나는 수업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면 즐겁고 더욱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20	나는 수업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 밖 여러 사람들과 계속해서 의논하려고 한다.
21	나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장래에 도움이 되기에 모든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한다.
22	나는 교과목의 내용을 보다 효과 있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23	나는 수업내용과 관련 있는 TV프로, 신문기사, 인터넷, 잡지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노력한다.
24	나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습·복습을 꼭 하려고 한다.
25	나는 어떤 수업시간이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No.	자기효능감
1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다.
2	나는 일을 순서를 정해 차례로 처리할 수 있다.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5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6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찾아낼 수 있다.
8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9	만일 내가 일을 선택한다면 나는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할 것이다.
10	나는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는다.
11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2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과 생각은 대체로 정확하다.
13	주변 친구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아서 불안하다.
1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5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
17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8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19	나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20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잡을 수 있다.
21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22	아주 쉬운 일보다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더 좋다.
23	나는 무슨 일이든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4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나는 될 때 까지 해본다.

The Effects of Online Mentoring on the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im, Mi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online mentoring program on the learning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 survey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reside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was conducted. They participated as mentees in the “2012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employed both quantitative (questionnaire survey) and qualitative (intensive interviews)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A total of 768 questionnaires (384 for pre-test and 384 for post-test) were under investigation. Both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 and General Self-Efficacy Sca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quantit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online mentoring program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chool learning motivaiton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le the off-line mentoring program doesn’t. Second, the online mentoring program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general self-efficacy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le the off-line mentoring program doesn’t. Third, the online mentoring program has, to a significant degree, a more positive effect than the off-line mentoring program on the learning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online mentoring program is a more effective method of after-school mentoring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an the off-line mentoring program to improve their school learning motivation

and self-efficacy. The effectiveness of the online mentoring program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online mentoring program that was applied in this study and administered by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stitute of Y University was indeed a 'blended' or 'hybrid' learning program, which combines elements of both the online and off-line mentoring programs.

The researcher also had intensive interviews with some selected mentees to supplement the research results from the quantitativ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online mentor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increasing their interest in studying, and letting them have a clear time concept. It was also effective in increasing their self-confidence, improving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 students, and resolving their anxieties.

In conclusion, the online mentoring program by Y University, which is in fact a kind of 'blended learning' or 'dual mode' mentoring program, is a more effective mentoring program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an the single-mode (either online or off-line) mentoring program. It is expected that more and more educational institutions will join in the mentoring programs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near future and they are more likely to adopt the 'blended dual mode' mentoring program. It is in this regard that we will need further research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icacy of these blended-type mentoring programs.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Mentoring, Online mentoring,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김민정
소속: 영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280 영남대학교 국제교류센터 209호
전화번호: 053-810-3604
전자우편: grapes7@nate.com

이 논문은 2013년 2월 26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31일 게재 확정함.